

춘분에 눈 평평 ... 봄은 왔는데 봄같지 않네



열었던 땅이 녹는다는 춘분인 21일, 전국적으로 눈과 비가 내리는 등 곳곳은 날씨가 계속된 가운데 광주 무등산 자락 원효사 등산로의 나무에 하얀 눈이 쌓여 있다. > 관련기사 7면 /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올 광주비엔날레, 예술이 된 5·18 본다

아피차퐁·나라 요시토모 등 40개국 153명 작가 참여
주제 '상상된 경계들' ... 인권·국가권력 등 메시지 전달

9월 개막을 앞두고 있는 2018 광주비엔날레에서는 광주민중항쟁으로 대변되는 민주·인권·평화의 광주 역사성을 담은 작품들이 대거 선보이고 인권, 국가 권력 등 묵직한 메시지를 시각화하는 다양한 작품들이 관람객들을 만난다.

<관련 기사 16면>

특히 최근 남북문화교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북한 조선화를 집중적으로 만날 수 있는 대규모 전시도 준비돼 있어 눈길을 끈다.

(재)광주비엔날레는 지난 20일 광주비엔날레 컨퍼런스홀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참여작가 명단을 발표했다.

오는 9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광주비엔날레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이번 비엔날레에는 40개국 153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상상된 경계들'(I-

magined Borders)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비엔날레는 클라라 김 테이트 모던 국제미술수석 큐레이터 등 11명의 큐레이터가 7개의 주제전을 꾸미며 광주의 역사성을 반영한 신작 프로젝트 'GB커미션', 해외 미술관이 함께 하는 '파블리온 프로젝트'도 새롭게 시작한다.

영상, 설치, 평면, 퍼포먼스 등의 다양한 매체를 망라해 동시대 현대미술의 패러다임을 제시할 참여작가 가운데는 스타 작가들이 다수 눈에 띈다.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자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과도 작업을 진행했던 태국 영화감독 아피차퐁 위라세타쿤과 일본 팝아트 선구자 나라 요시토모, 마르셀 뒤샹상 수상자인 프랑스의 현대미술가 카데르 아타이 등이 다.

특히 올해 행사에는 아시아권 작가의 비

중이 67%에 달하는 등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으며 벨기에 출신으로 멕시코에서 활동하면서 라틴아메리카의 근대화를 조명해 온 프란시스 알리스 등 제3 세계권과 디아스토라 이력의 작가들도 다수 참여했다.

한국 작가 역시 역대 비엔날레에서 가장 많은 43명이 포진해 있다. 2015년 베니스 비엔날레 본전시 참여작가인 김아영 작가가 참여하며 문선희·박상화·이정록 등 2017 광주비엔날레 포트폴리오 리뷰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된 광주·전남 출신 작가 10명도 합류했다.

북한을 9차례 방문한 북한 미술권위자 문범강 큐레이터(미국 조지타운대 교수)가 기획한 북한미술 색션에서는 최창호 인민예술가 등이 평양만수대창작사에서 제작한 조선화 20여점을 선보인다. 집체화가 주를 이루는 전시는 세계 최초로 광주비엔날레 측은 통일부의 작품 반입 승인을 위한 절차를 밟는 중이다.

'GB(광주비엔날레) 커미션'에서는 민주, 인권, 평화로 대변되는 광주 정신을 구

현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영국의 유명 설치미술 작가인 마이크 넬슨이 광주민주화운동 현상이었던 옛 국군병원을 모티브로 한 설치 작품을 선보이며 카데르 아타이는 광주민중항쟁 생존자를 만나 1980년 현장에 머무른 광주시민과 오늘날의 현대인을 연결시킨 조각 작품을 제작한다. 또 아피차퐁 위라세타쿤은 광주라는 역사적 맥락 안에서 자신의 정치적 세계관을 녹여 낼 계획이다.

그밖에 박화연, 여상희, 로아정(노윤희·정현성) 등 한국 젊은 작가들도 광주민주화운동과 한국 민주주의의 도도한 흐름을 담은 작품들을 선보인다.

해외 미술관과 협업하는 파블리온 프로젝트는 올해 처음 선보이는 기획이다. 파리 팔레 드 도쿄는 광주시민회관에서, 헬싱키 인터내셔널 아티스트 프로그램은 웰재미움에서 전시를 진행하며 필리핀 컨템포러리 아트 네트워크도 광주와 연계한 전시를 선보인다.

>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

대통령 개헌안에 명시 ... 토지공개념·농어업 공익 기능도

청와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 할 개헌안의 총강·경제·지방분권 분야를 공개했다.

<관련기사 3면>
지난 20일 개헌안 전문과 기본권 분야에 이은 2차 발표로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하고, 자치행정·자치입법·자치재정권을 크게 강화해 자치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 전문 개정에도 더해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각각 변경하고,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주권을 부여했다.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치 행정권을 강화했다.

현재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해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더욱 폭넓게 보장되도록 했다.

자치재정권 보장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거나 지역 간 재정격차 확대를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재정 조정에 대한 헌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을 헌법 총강에 명시했다.

또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국가는 이를 토대로 농어촌·농어민의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했다. 그동안 비교적 취약했던 기초학문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에 기초학문 장려의무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남북미 3국 정상회담 가능"

문대통령 "한반도 핵과 평화문제 완전히 끝내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진전 상황에서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회담들과 앞으로 이어질 회담들을 통해 한반도 핵과 평화 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실제 성사될 경우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문제 해결의 중대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오는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

는 판문점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있는 장소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중재자인 문 대통령이 참여하는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오는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을 오는 29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하고자 이날 북 측에 제안했다.

청와대는 이날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고위급회담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대표단 등이 의제로 다루질 전망이다.

>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논설위원이 간다
지방선거 속으로 ▶5면

그림편지 - 장성에서 임근재 ▶18면
KIA 김윤동 '돌직구 마무리'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공식행사 4.14(토) 14:00~

느림의 타종식
오색가래떡 나눔잔치
나비아 청산가자

©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힐링토크(11시~12시)
식전공연 - 여행스케치 외(1시~2시)

2018. 4. 7(토) ~ 5. 7(월)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도 일원

2018 원도 장보고 수산물 축제

청산도 슬로걷기축제 2018

2018. 5. 4(금) ~ 5. 7(월) / 4일간
완도해변공원, 청해진유적지 일원

- 5.4(금) 완도군민 화합 한마당 군민화합 가왕 선발전
- 5.5(토) 218m 해조류김밥 만들기, MBC TV 축하쇼
- 5.6(일) 김제동·이승환의 라이브 Show
- 5.7(월) 전남 도립국악단 특별 초청공연